

'대퇴직' 시대상 담은 비욘세 노래 화제

팝스타 비욘세의 신곡이 미국의 '대퇴직' (Great Resignation) 시대상을 담아 사람들의 공감을 얻으면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이 노래가 발매되자 누리꾼들은 인터넷에서 "퇴사하고 싶어진다"는 등의 반응을 보이며 열광하고 있다.

비욘세가 최근 발표한 싱글 'Break My Soul'의 노래 가사는 "방금 직장을 떠려치웠어. 회사는 날 정말 힘들게 해. 밤에 잠을 잘 수가 없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노래 출시 이후 누리꾼들은 온라인에서 "비욘세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했다.", "비욘세 말대로 사직 이메일을 보냈다.", "근무 시작 1시간 만에 왜 비욘세가 일을 그만두라고 했는지 알겠다."라는 글을 잇따라 올렸다. 누리꾼들은 이 노래에



▲ 비욘세. 사진=rollingstone.co.uk

'대퇴직을 위한 송가'라는 별칭을 붙이기도 했다.

'대퇴직'은 코로나19 여파로 작년 초부터 본격화한 현상이다. 미국에서 구직자보다 기업의 구인 건수가 훨씬 많아지면서 직장을 옮기기가 쉬워지자 퇴직자들이 크게 늘었다. 근로자들의 번아웃(심신 소진) 현상, 재택·원격 근무 확산 등 노동 환경 변화, 시간당 임금 상승 등도 퇴사 트렌드에 영향을 미쳤다.

CNN은 "비욘세 노래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사회 경제적 피로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욕망을 담았다."며 "승진 등 직장 경력에 목을 매는 문화를 걷어차 버리려는 사람들이 비욘세의 메시지에 동조했다."고 전했다.

BTS, 빌보드 싱글 차트에 신보 2곡 올려

방탄소년단(BTS)이 새 앨범 '프루프' (Proof)에 실린 신곡 2곡을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 '핫 100'에 동시에 진입시키는 성과를 냈다.

지난 20일 미국 빌보드 공식 홈페이지에 따르면 방탄소년단은 이 차트에 타이틀곡 '옛 투 캠' (Yet To Come)을 13위, 수록곡 '달려라 방탄'을 73위에 각각 올려놨다.

'프루프'는 2013년 데뷔 한 방탄소년단의 지난 9년



▲ BTS '옛 투 캠' 빌보드 싱글 차트 13위. 사진=BTS 공식 트위터 캡처

간의 여정을 망라한 앤솔러지(선집) 앨범이다.

최근 단체 음악 활동에 '쉼표'를 찍은 방탄소년단은 빌보드 싱글 차트 상위권을 차지하며 '유종의 미'를 거두게 됐다. 이 같은 성적은 정규 음반이 아닌 과거 발

표곡이 주를 이루는 앤솔러지 앨범곡. 그것도 영어가 아닌 한국어곡으로 거둔 것이어서 특히 의미가 있다.

또 '달려라 방탄'은 TV 음악 프로그램 무대에서 선보인 바 없는 수록곡인데도 '핫 100' 진입에 성공하는 이번을 연출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2017년 'DNA'를 시작으로 그룹 명의 노래 기준 현재까지 총 25곡을 '핫 100'에 진입시킨 바 있다.

이 가운데 '핫 100' 1위곡은 '다이너마이트' (Dynamite), '새비지 러브' (Savage Love), '라이프 고스 온' (Life Goes On), '버터' (Butter), '퍼미션 투 댄스' (Permission To Dance), '마이 유니버스' (My Universe) 등 총 여섯 곡이다.

현지야, 한국 데뷔 싱글 발표



▲ 현지야 뮤직비디오 한 장면. 사진=유튜브 캡처

한국계 미국인인 싱어송라이터 현지야 (HUNJIYA)가 지난 23일 싱글 '페이보릿 & 토크 투미!' (Favorite & TALK2ME!)를 한국에서 발표했다.

현지야가 한국에서 처음 내는 이번 싱글에는 두 곡이 수록됐다.

첫 곡인 '페이보릿'은 이별을 계기로 온전한 자아를 찾았다는 내용을 담은 R&B 곡이다. 또 다른 곡 '토크투미!'는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겪게 되는 문화나 언어의 장벽과 그로 인한 혼란을 그려냈다.

엠넷 래퍼 경연 프로그램 '쇼미더머니'를 통해 이름을 알린 프로듀서 밀릭은 본인 서사를 노래로 담아내는 현지야의 재능을 눈여겨보고 자신이 설립한 레이블 파이스퍼밀에서 함께 음악 작업을 하자고 제안했고 '페이보릿 & 토크 투미!' 도 그 결과물이다.

현지야는 "다채로운 자아를 노래한 음반인 만큼 듣는 이들에게도 스스로 몰랐던 내면의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울림이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현지야는 고등학교 때부터 자아 탐구를 주제로 음악 작업을 해 왔다. 2019년 영국 보그지는 현지야의 탐구하는 아티스트적 자질을 높이 사그를 '주목해야 할 신예 아티스트'에 선정하기도 했다.

현지야는 7월 13일 EP(extracted play, 수록된 곡이 싱글보다 길고 정규앨범보다는 짧은 앨범) 'KHAMAI'를 발표한다.



EXPO LENDING

Gale Financial DBA Expo Lending
Equal Housing Lender DRE: #02064448 NMLS: #1721928



투자용 주택 스페셜 프로그램

신속한 융자 필요하신 분! 융자 상담 도와드립니다. 타주 융자 가능

- No Income Program – Credit 640부터, 20% down 가능
- Conventional Loan • VA/FHA Loan
- Refinance/ Rate & Term/ Cash-out



Sean Kim
Senior Loan Agent

NMLS #343413 213.591.2535
seanhansu@gmail.com

18725 E. Gale Ave. Ste. 100, City of Industry, CA 91748